

# “광주, 현 추세라면 내년 3월 1일 제한급수 불가피”

### 강기정 시장 “실행계획 준비...20% 절수하면 위기 넘길 수 있어”

#### 전남도, 도서지역 관정 지원·절수 캠페인 등 가뭄 극복 총력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실천에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 급수라는 비상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시민 절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한 급수를 시행할지 말지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격일제 급수로 특정 시간에 급수를 제한하는 방식,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 시장은 전했다.

강 시장은 또 제한급수를 시행한다면 예정일은 내년 3월 1일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만 급수일에 물을 사전에 받아두고 쓰는 탓에 절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 등도 있는 만큼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제한 급수가 시행됐던 1992년 당시 업무 담당자까지 논의에 참여해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전남도도는 49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도내 전역으로 시행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 캠페인 전개, 대체수원 확보 및 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가뭄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도서 지역에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완도, 신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비비 4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 금일·넙도·소안면 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급수 차량을 추가 운영해 물 공급량을 확대하고 내년 2-3월까지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노화·보급도 지역과 고금·약산·금일지역

엔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및 대형 관정이 가동되면 2023년 2-3월 이후 금일·넙도·소안 1일 주민 물 수요량 대비 1-2배 정도의 물이 공급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달 18일 환경산림 민간단체회원, 여수산 단협의회 등이 참여한 현장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비자단체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 ‘공직자 물 절약 캠페인’ 등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해수담수화 등 물 부족 지역 중심으로 선제적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 어려움을 겪는 완도, 신안 등 섬 지역 광역상수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개인, 사업장, 기업 등 범도민 물 절약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문화콘텐츠 기업 광주행 줄 잇는다

### 광주시 5개사와 투자협약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등 성과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광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유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운영을 통한 세계 혜택과 자금 지원에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13일 라다마호텔 총장호텔에서 ‘2022 광주 콘텐츠 데이’를 열고 현지 법인 설립 및 기업 이전을 추진 중인 (주)쿠아탑스, 캣벨컴퍼니(주), (주)일리오, (주)광자주, (주)데브컴리미트 등 문화콘텐츠기업 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협약과 함께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유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광주시는 앞으로 ▲투자실행과 관련한 제반 행정적 서비스 ▲지역 내 문화콘텐츠 관련 인프라 활용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협약 기업 외에도 로간벤처파트너스, 지엘창업투자, 실버레이크인베스트먼트, 이크릭스벤처파트너스, 가이아벤처파트너스, 보광인베스트먼트, SK브로드밴드, 대교인베스트먼트, 임팩트파트너스(주), 미시간벤처캐피탈, 브래드&피쉬, 웰투시벤처투자, KC벤처스 등 13개 투자사가 참석했다.

(주)쿠아탑스 박철희 대표는 “광주시민의 환대에 감사하다. 광주시의 지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다양하게 협업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가 문화와 결합할 때 문화콘텐츠 기업 성장도 극대화된다”며 “최근 개관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산업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맛과 멋, 매력이 넘치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도전정신과 상상력만 있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투자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광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CGI센터권, 아킴보호텔 등 3개 권역에 60만평이 지정돼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20일까지 수행기관 공모

광주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케어)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역량강화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이며, 2곳을 모집해 종사자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광주지역 비영리법인·단체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 상담실과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교육실, 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케어)사업 수행기관은 총사업비는 1억58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모집대상은 1곳이다.

광주시에 위치한 비영리법인·단체로, 가사도우미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사·공고를 참조해 오는 20일까지 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 적정성·사업 수행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행기관을 선정, 12월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와 심사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공동체 한마당 행사 13일 오후 동구 금남로지하상가 2공구 권역 일대에서 열린 '2022 광주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굿거리노래 선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 전남 공공기관 기능 통합·민간 이전으로 경영 효율화

### 성과·혁신방안 보고회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합, 일부 기능의 민간 이전 등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개발공사 등 도 산하 18개 공사·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공공기관 주요성과 및 혁신방안 보고회’를 열어 공공기관 체질 개선을 위한 자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성과와

자체 혁신방안을 공유해 도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점검했다. 기관별 혁신방안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에너지사업단-상용화사업실과, 연구개발본부 정책팀-사업개발팀을 각각 통합 운영해 정책과제 기획 역량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남문화재단은 유사 목적사업 통합에 나선다. 남도예술은행 운영사업과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 남도사이버 갤러리 운영사업 통합을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할 예

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관광 숙박 사업장 소유권의 민간 이전으로, 강진의료원은 중장기 부채 목표 관리 등 운영으로 각각 재정건전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2023년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강 필요사항 또는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수목장\*자연장 전문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 062) 464 - 9190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